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댄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부, 교통사고 감소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추진

작년 음왕리 음주사고 가해자 사고부담금 300만원 불과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사 구상 한도 '전액'으로 상향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의 자동차보

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범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중인 제도로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를 충돌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 B씨에게 사망 보험금 2억7000만원이 지급됐는데,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차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또한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오비맥주, '카스' 투명병으로 생생하게 마셔보세요 28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모델들이 투명병으로 싸 박힌 '올 뉴 카스'를 소개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올 뉴 카스'에 투명병을 새롭게 도입, 오늘날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심플함'과 '투명성'을 표현해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도 생생하게 카스의 청량감과 신선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 뉴 카스'는 3월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상권에서 판매가 시작되고 4월 중순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센터 위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한다

행안부, 코로나19 접종정보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CSV 엑셀 호환 포맷로도 제공...데이터 활용성 높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의 활용이 더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접종 장소인 중앙·권역·지역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정보와 접종 실적 통계 2종이다. 현재 중앙·권역·지방 예방접종센터 22곳이 운영 중이며, 향후 센터 250여 곳과 위탁의료기관 1만여 곳이 추가

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76만7451명이다. 여기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3833명을 합치면 누적 접종 인원은 77만1284명이 된다.

이 데이터들은 오픈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형태로 제공돼 국민들은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민간 기업과 개발자들은 별도의 가공 노력 없이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또 CSV 엑셀 호환 포맷로도 제공해 데이터 활용 목적에 맞게 선택해 쓸 수 있다.

오픈API 데이터는 포털 회원가입 후 인증키를 발급 받으면 된다. CSV 데이터는 포털에서 즉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활용이 편리한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코로나19에 어려운 항공업계...다양한 이벤트로 돌파구 모색

가수초대·특가할인·사연공모 등 다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기내 가수초대, 항공권 가격인하, 선물용 항공권 등 저마다의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에어로케이는 지난 25일 오전 제주로 향하는 RF6051편에서 가수 선우정아를 초대해 게릴라 이벤트를 했다.

비행기 이륙 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진 뒤 항공기 뒤쪽 좌석에 있던 선우정아가 깜짝 등장해 노래를 시작했다. 탑승객 전원에게는 친필 사인과 기념 탑승권 등 특별선물도 제공했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LCC 플라잉윈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희망의 날개' 사연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플라이강원은 이벤트 당첨자에게 양양-제주 노선 무료 왕복 항공권(1팀 2명), 제주 신화월드 랜딩관 2박3일 숙박권, 렌터카 60시간으로 구성된 제주 여행 패키지를 선물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 연인구 제우 여행을 가야하는 사연을 주제로 응모하면 된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7일까지 일본, 홍콩, 괌 등 선물용 항공권인 '기프티켓'을 판매한다.

제주항공의 선물용 기프티콘인 기프티켓은 탑승인원 및 날짜의 제약 없이 유효기간 동안 누구든 원하는 날짜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항공권이다.

비수기 왕복 운임 기준 ▲일본 전 노선 14만9000원 ▲홍콩, 대만, 마카오 노선 19만9000원 ▲괌, 사이판 노선 29만9000원 ▲동남아 전노선 27만9000원부터 판매하고, 성수기에도 사용할 가능한 항공권은 ▲일본 전 노선 29만9000원 ▲홍콩, 대만, 마카오 노선 34만9000원 ▲괌, 사이판 노선 49만9000원 ▲동남아 전노선 45만9000원부터 판매하며 각각 5000매씩 선착순 판매한다.

아시아나는 봄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노선 특가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대상은 김포-제주, 여수-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특가항공권은 편도 총액 기준 최저 2만7100원부터다.

아시아나는 국내선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 시 사용한 마일리지의 20%를 다시 되돌려 주는 '마일리지페이백 이벤트'도 실시한다.

김포-제주 왕복구간을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구매 시 1만마일을 차감하게 되는데, 탑승을 완료할 경우 2000마일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식이다.

홈페이지 이벤트에 응모한 후, 3월 8일~4월 16일까지 국내선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고, 3월 10일~4월 30일까지 탑승을 완료할 고객이 대상이다.

진에어는 진에어 홈페이지 회원층을 대상으로 30일 10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일간 가장 낮은 운임의 항공권을 대우모로 판매하는 연중 최대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대상 노선은 국내 전 노선과 국제선의 경우 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세부, 다낭, 방콕, 괌 총 7개 노선이다.

항공권은 왕복 총액 운임 기준으로 국내선 1만원대부터 국제선은 8만원대부터 예약할 수 있다. 특가 항공권에도 무료 위탁수하물 15kg과 무료 기내식은 동일하게 제공된다.

아울러 4월 1일 하루 동안 국내선 균일가 특가 이벤트를 운영한다. 노선에 따라 항공 운임 편도 기준 4,700원, 5,700원, 9,700원 특가 항공권을 한정 판매한다.

여기에 심야 시간 10% 추가 할인, 진에어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대상 시크릿코드 공개, 1만원 상당 지니쿠폰 100원 판매, 카드사 및 간편 결제 제휴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김민정기자

KT 빅데이터로 상권 분석 서비스...예비창업자 무료 지원

유동인구·매출정보·고객동선 등 팁 제공

KT는 소상공인 대상 무료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인 '잘나가게'에서 기존 사업주뿐 아니라 예비창업자를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인 '타지역상권'을 신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업을 고민 중인 예비창업자들이 KT 잘나가게의 '타지역상권' 탭에서 업종과 주소를 선택하면 주변 상권의 ▲유동인구 ▲매출정보 ▲고객동선 등 핵심 정보와 함께 창업 업종의 운영팀까지 '잘나가게 TIP'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 '타지역상권'에선 어떤 지역이라도 건물과 업종별로 상권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유동인구 정보는 매일 유동인구를 예측한 데이터와 함께 요일 및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의 가게 주변 인구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1년간의 유동인구 변화량을 제공해 해당 지역 상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 분석은 주변의 선택업종 및 연관업종의 지난 달 평균매출과 1년간의 매출 추이, 1회 평균 결제금액 등의 정보를 비롯해, 실제 소비인구의 성·연령·시간·요일대별 통계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업종의 경쟁 점포 위치, 점포 수 변화, 평균 영업 기간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KT AI/BigData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는 "소상공인을 위한 빠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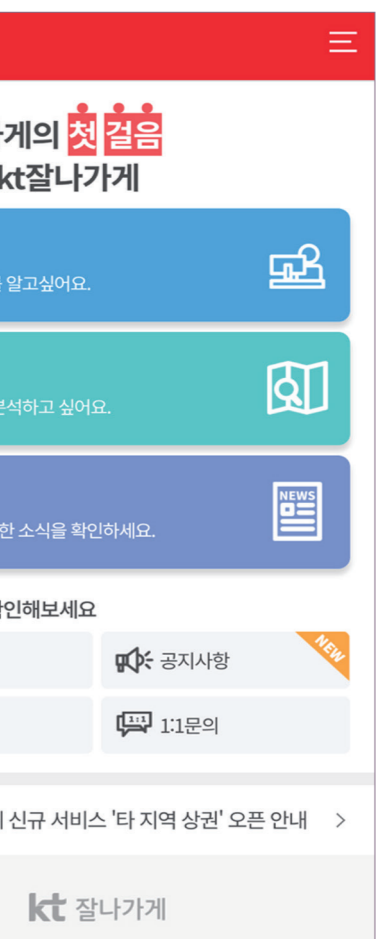
정보도 제공한다.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을 분석해 점포를 찾는 고객이 주로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몇 미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를 지도에 표시해 보여준다.

'네이버 부동산'과도 연동된다. 네이버 부동산 분양팀의 '상가-업무' 메뉴를 선택하면 KT 잘나가게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잘나가게 상권 정보 더보기'를 눌러 '잘나가게'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이며, '타지역상권' 서비스의 경우 상권 분석 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 건물별 1일 조회수는 3회로 제한된다.

신청 및 상세 안내는 KT 잘나가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KT AI/BigData사업본부장 최준기 상무는 "소상공인을 위한 빠른



고 쉬운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인 잘나가게가 예비창업자를 위한 '타지역상권' 서비스를 오픈하고, 네이버 부동산과의 서비스 연동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